

미래 100년의 새로운 꿈

오늘 건학 기념일, 동국의 새로운 탄생 알려 ...



캠퍼스 마스터플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100주년 기념축시

무한히 계속될 이 민족사 속에서

미당 서정주

국선화랑도와 불교의 원만한
통합정신을 이어 받아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힘을
그대로 계승해서
'햇빛 밝은 동쪽의 아침나라' 라는
뜻으로
동국대학교라는 이름을 지니 내려온
우리의 뚜렷한 교육의 전당이며!

1910년 엉터리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못난 이왕조는 일본에
합병되어 버렸지만,
일본불교 조동종이 우리 불교까지를
합병하려하자
우리의 박한영, 한용운 스님은 나서서
맹렬히 반대해
이것까지는 못하게 막아냈나니,

한용운 스님으로 말하면
1906년에 개교한 우리 동국대학교의
제일회 졸업생이고,
박한영 스님은 또
우리 학교 초창기부터의
참 좋은 교수님 아니신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3인 중의 한분인 한용운 스님 밑에서
우리 동국대 학생들은 각지로 나뉘어져
이 일을 이루어냈나니,
그들 중의 김법린, 백성욱같은 학생은
해방 후 우리 대학교의
한때의 총장님들도 되었었지.

이 나라를 철저히 사랑해 지키며 공부하는
이 정신이 언제인들 끝날 수 있겠는가?
1960년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를
유탄하는 4·19가 터지자
대통령의 경무대로, 경무대로
맨 앞장서서 물러가다가
맨처음 사격에 희생당해 순절한 것도
우리 동국대 학생이 아니었나?!

언제나 이 민족의 정의에 앞장서고,
의리와 인정에 투철하고,
엉터리 학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오랜 학풍을
우리는 믿나니,
무한히 계속될 이 민족사 속에서
모교여 늘 건재지만 하소서!

이사장 100주년 기념사

백년 전통 이어받아 새시대 주도하는 동국인



금지가 해제된지 불과 9년만의 일로서, 실로 빠른 근대화의 대응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교직원 일천명 재학생 이만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들은 일제 강점의 시기에 민족 정신의 함양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때문에 총 두 번에 걸쳐 강제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부당한 세력에도 온 몸으로 저항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야말로 우리 동국정신의 근간인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되던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오직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일념으로 중생들과 살아냈던 그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100년이라는 영광된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0년을 이어받아 새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선배들이 격동기의 민족사를 선도했듯, 우리 후인들도 무한 경쟁 시대의 학문 세계를 주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적 야심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와 생명 세계라는 전체를 향해 관심과 배려의 범위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거시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도출하는 것, 지적 깊이와 인격적 넓이를 아울러 갖춘 경쟁하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표로서의 대학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이 사회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법(如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지나간 후에야 시냇물은 봄 소식을 전하니, 버들잎 푸르고 아침 안개가 천지에 가득합니다.

雨過溪流傳春聲 柳綠更帶滿曉霧

부처님께서 우주 만유의 진리를 세상에 퍼신지 이미 2500여년이고, 그 진리의 당체인 제법실상(諸法實相)이 상주 불변하는 영원의 진여(眞如)라면, 우리의 건학 100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이 식민지와 분단과 근대화라는 격랑의 시대였던 것에 비한다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은 그런 질곡의 격랑을 뚫고 내리는 한줄기 희망의 햇살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선배들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생들에게 접근하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아 사찰 재정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17개 사찰에서 기금을 모아 명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구한말 승려의 도성출입

즉, 추위 속에서도 문득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비가 온 후에야 새순도 푸르게 돌아옵니다.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봄이 반가운 것이고, 추위가 있기에 꽃향기가 좋은 것을 압니다. 우리의 현재가 고달프고 시련이 크기 때문에, 단비처럼 내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반길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희망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화합과 지혜로써 정진해 나아가면 그 어떤 이상과 사명도 능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신념과 화합만이 일체고난의 흐름을 건너게 해줄을 믿으며, 동국 새 100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천룡이시여,
우리를 옹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재난을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이와 같은 큰 발원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願諸佛菩薩天龍
爲我擁護不離身
於諸難處無諸難
如是大願能成就

환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100주년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며, 끝으로 동국 가족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봉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동국대학의 앞날에 무한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 현 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경애하는 동국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싱그러운 기운이 충만하고 만산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펼쳐는 춘계의 향연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오늘은 일련의 침묵에 대응하고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설립된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우주 만유의 진리를 세상에 퍼신지 이미 2500여년이고, 그 진리의 당체인 제법실상(諸法實相)이 상주 불변하는 영원의 진여(眞如)라면, 우리의 건학 100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이 식민지와 분단과 근대화라는 격랑의 시대였던 것에 비한다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은 그런 질곡의 격랑을 뚫고 내리는 한줄기 희망의 햇살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선배들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생들에게 접근하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아 사찰 재정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17개 사찰에서 기금을 모아 명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구한말 승려의 도성출입

총장 100주년 기념사

원대한 비전 가지고 새희망 향해 나아갈 때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십만 동문 여러분.

우리 대학은 아직 한국 최고의 대학이 아닙니다. 아직 가장 출중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한국의 많은 대학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처럼 인류 보편의 이상을 교육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은 드물습니다. 우리 대학처럼 한국의 유구한 전통에서 자라나는 대학은 드물습니다. 우리 대학처럼 한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대학 또한 드물습니다. 지난 백 년 동안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 중 한국인이란 누구나 기억하고 자랑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헤아리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풍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 인문, 예술 등 분야에서 우리 대학이 한국 정신문화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가능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대합니다. 우리는 긍지를 가질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하하고 격려할 이유 역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국내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대학에 다가온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교육과 연구 양면에서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능력 강화, 교육 시설의 개선과 캠퍼스 확충, 대학의 구조 조정, 국내의 대학과의 교류 촉진, 지역 사회 및 산업 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실적을 나타내는 각종 평가 지표들은 우리 대학이 확실하게 상승 궤도에 들어

있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와 재단은 동국의 특성을 살려 전략적 발전 방향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동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후배 재학생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인적인 교육과 전문적 학문연구를 통해 동국발전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동국인들에게 동국백년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국학원 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삼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동국인 하나 하나의 심중에서 발현된 동국사랑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동국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용 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이십 만 동문 여러분.

우리는 목은 백 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백 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학의 기틀을 만든 선각자의 염원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분발합니다. 깊이 성장하고 크게 구상합시다. 각자 본분으로 돌아가 자신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인재를 기르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대학의 업적은 각자 맡은 의무를 수행하고자 성의를 다함으로써 나날이 향상될 것입니다. 건학 백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아끼듯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마음속에,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마음속에, 밤새워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문들의 마음속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 대학과 맺어진 인연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인연을 맺은 덕택에 누리는 보람과 짙어진 책임을 함께 생각합시다.

건학 백주년을 맞아 내외 귀빈 여러분과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모든 동문 각자의 삶에 크나큰 영감이 있기를, 우리 대학이 육성한 인재들이 거제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찬란한 영예가 이루어지기를, 민족의 화해를 통해 나라의 번영이 있기를, 또한 우리 대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홍 기 삼
동국대학교 총장

건학 100주년 기념 축하

총동창회장 축하

하나되어 만드는 세계속의 모교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가 건학 1백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보의 정재로 교육구국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설립된 우리 동국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중앙학림, 해화전문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족의 질곡과 아픔을 같이 한 우리 동국은 건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새로이 하여, 이 모든 역경을 이기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영광된 자리의 주인공인 우리 20만 동국인들의 감회와 기쁨은 실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국인 여러분!
건학 1백주년을 맞이한 우리 20만 동문에게는 동국대학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총동창회 20만 동국인은 동국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와 함께 세계속의 동국을 건설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와 재단은 동국의 특성을 살려 전략적 발전 방향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동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후배 재학생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인적인 교육과 전문적 학문연구를 통해 동국발전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동국인들에게 동국백년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국학원 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삼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동국인 하나 하나의 심중에서 발현된 동국사랑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동국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용 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교수회장 축하

의리와 인정에 투철한 학풍



무한히 계속될 동국 건학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께서는 동국의 오늘을 위해 미리 남긴 시에서 “언제나 이 민족 정의에 앞장서고, 의리와 인정에 투철하고, 엉터리 학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오랜 학풍을 우리는 믿나

니, 무한히 계속될 이 민족사 속에서 모교여 늘 건재기만 하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동국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말 성찬 가운데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의리와 인정을 소홀히 하는 현 세대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지시해 주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면서 민족 계몽에 앞장섰고, 우리 민족이 독재에서 시름할 때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던 훌륭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 어느 대학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치가 혼돈되어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물연치가 판을 치는 세상 이라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

치는 진정한 학문을 하는 가운데 의리와 인정에 투철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우리 동국대학교가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계 선각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학한 그 훌륭한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 100년 뒤의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감지와 반응의 시대입니다. 대학도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거기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세계화와 다양성의 이 시대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우리 교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당하여 동국의 미래를 결정할 리더십 창출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이 종 옥
교수회장

직원노조 축하

자리이타의 가르침 실현



건학 100주년, 동국가족과 함께 축하합니다.

1906년 5월 8일 명진학교로 출발한 우리 동국대학교가 마침내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직원 노동조합은 이렇게 뜻 깊고 의미 있는 건학기념일을 맞이하여 학내 구성원의 주체로서 교수회, 학

생회와 함께 재단과 학교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또한 축하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사람을 길러 세계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자리이타를 서원으로 풍찬노숙의 시기에 동국을 열어 슬한 옛갈림 가운데서도 오늘에 이르게 한 많은 선각자 여러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 노동조합은 새로운 동국 100년을 위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바를 행정에 접목, 동국 발전의 명실상부한 한 축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해야 할 우리 동국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모든 결정을 각자의 책임으로 자임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참다운

진리를 등불로 삼아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건학 100주년 기념일은 우리 동국이 이미 거목임을 자축하면서 동시에 불교계 선각자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 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 노동조합은 동국대학교가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후분분장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계 속의 대학을 만드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건학 100주년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 기 석
동국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총학생회장 축하

현대사와 함께 걸어 온 100년



눈이 부시게 푸르른 5월, 교정은 건학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한해를 맞이하여 설레고 있습니다. 또한 1만 3천 학우들은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제 강점하에서 폐교될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지만, 20만 동문의 인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100년이라는 동

국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지혜와 자비를 증진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라는 건학 이념을 한결같이 간직해 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 동국인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문의 정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주옥같은 문화 작품으로 우리 민족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던 4.19혁명 당시 시위 대열의 최전선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의 100

년은 조국의 근현대사와 같이 해 왔기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동국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박영석 동문이 그랬듯이, 우리 동국인은 “1%의 가능성” 만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축적된 자부심은 최근 전국 대학 특허 출원 2위와 논문 발표 수 1위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족이 요구하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8일은 단지 100년의 역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건학 이념을 계승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반성과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모두가 화합(和合)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학은 화합이라는 큰 장을 마련하여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동국대학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 성 전
총학생회장



“어둠 속 등불”

동악이 현해졌습니다. 그 옛날 어두운 시대 상황 속 등불이 됐던 명진학교처럼, 우리도 동국의 새백년의 앞날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신임이사장에 영배스님 선임

오는 18일부터 직무수행 예정

지난 4월 27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18차 이사회에서 영배스님이 재단 제3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사회 임원 13명중 12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해스님 후임으로 영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 도중 이사장 선임에 놓고 영담스님이 “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30분간 휴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합의 결과 이사장 후보가 현성스님과 영배스님으로 좁혀졌다.

현성스님이 “동국대 이사가 된 지 오래됐고, 여태껏 학교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해왔다”며 “내가 이사장을 고집하면 자칫 분열이 될 수 있으니 영배스님을 이사장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영배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영배스님은 선출 후 인사말을 통해 “현성 스님께 죄송하고 동시에 저를 뽑아준 여러 이사 스님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이사 스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배스님은 “모든 대학들이 무한경쟁 속

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 역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명문사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해 동국대라고 하면 조계종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스님은 역대 최연소 이사장으로 1966년 경학스님을 은사로 수계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방송 상무,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동국대이사회 상임이사,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역대 최연소 이사장인 영배 스님은 현 이사장인 현해 스님의 임기만료 다음 날인 오는 18일부터 이사장 직무를 맡게 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임 외에도 △교원인사 △임원임기연장신청 △임원해임 및 선임 △법인규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와 승인됐고, 불교대학 교원초빙 심사위원 초빙규정에 관해서는 다음 이사회로 넘기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오늘(8일) 건학100주년 기념식 열려

기념식 낭독·평화선언 기념공연 등 기념행사 풍성

모든 동국인이 기다리던 오늘, 건학 100주년의 날이 마침내 밝았다.

‘건학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솔제임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공연은 기념식 공식행사의 막이 올랐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MBC의 이재용 아나운서와 아리랑TV의 안정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기념식 공식행사는 이날 참석한 법전 조계종 종정여하의 축하법어와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미당 서정주 선생이 작고 전에 남긴 100주년 기념시를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 시는 미당 선생이 모교의 100주년

을 10년 앞두고 미리 써 놓은 축시로서 지난 1일 최초 공개돼 문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이끈 바 있다.

이밖에 동국대학교 홍보영상과 각계 명사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되고, 이번 동국대 건학10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인 ‘민족의 화해, 종교의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홍기삼 총장의 평화선언문 낭독과 평화선언 기념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법전 종정여하 뿐만 아니라 박경조 성공회 주교, 한광도 천도교 교령,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 종교계 인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정운찬 서울대 총장, Alf Zimmer 독일 레겐

스부르크 대학 총장, 이어령 동국대·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의 교육계 인사, 또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선 강원도지사, 최재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및 중국·인도·캐나다 대사 등과 함께 동국대학교 동문 연예인 홍보대사, 국내·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오후 12시 30분 기념식이 끝난 후 모든 동국인들과 손님들은 잔치국수를 받을 수 있다. 오후 1시에 열리는 행사 잔치마당에서는 떡과 음료수를 받고, 경품 추첨 행사, 투호·죽마놀이·활쏘기·떡메치기 등 각종 민속놀이, B-boy, 아수라 축

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는 가벼운 분위기를 유도, 모두가 편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배려이다.

한편 기념식 전, 정각원 100일기도 회향법회가 8시에 있고 법회가 끝난 9시에는 정각원 앞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있다. 기념식 식전행사는 팔정도에서 군악대의 환영 연주로 시작되고 다량관 열 개시관에는 축하 메시지 Board가 설치될 예정이다.

만해광장에서는 9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행사 안내 영상 △기념식장 현장 스케치 영상이 방영된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지난달 27일 열린 218차 이사회 모습.

금주의 동국인

‘서포터즈호’ 선장 홍준기(신방4) 군

학교 행사 때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행사 이모저모를 돕는 그들. 그들은 누구인가? 동국인들의 긍지를 한 몸에 산 그들의 신원이 드디어 공개됐다. 우리학교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며 학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해 선별된 58명으로 모인 ‘동국 100년 서포터즈 호’를 이끄는 이가 있다. 바로 동국 100년 서포터즈 회장을 맡고 있는 홍준기(신방4)군이다.

올해 4학년이 재학 중이기에 졸업하기 전에 뭔가 학교에 도움이 될 일이 없는지 상고민해 왔다는 그. 그에게 ‘동국 100년 서포터즈’는 기회이자 운명이었다.

지난 1일 ‘동국 100년 서포터즈’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요즘 그는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즘 건학기념일이 다가오고 진행되는 행사가 많아 이것저것을 하느라 귀가시간이 밤 11시를 훌쩍 넘길 때가 많아요”라며 “힘들기도 하지만 서포터즈 단원들 간의 단합력이 좋아서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라 말하며 미소짓는다.

올해 처음 출범해 ‘동국 100년 서포터즈’로서 발을 디딘 만큼 1기 단원들에게는 ‘처음 시작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를 할 때 서포터즈 자체에서 해결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배우고 있다고 한다.

서포터즈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포터즈 단원들의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는 홍준기 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서포터즈가 직접하는 활동은 없지만 2학기에는 서포터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진정한 학교사랑이 느껴졌다.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5월. 앞으로도 학내의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포터즈 단원들은 상냥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내 구성원들이 서포터즈 단원들의 활동모습을 보며 “수고하세요”라고 한마디 해 주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기쁠 것이라는 그. 그와 같은 동국인들이 있기에 동국 100년의 새로운 미래가 더욱 희망차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 놓고
눈동자를 들여다 보았을 때
눈동자에 나타난다는 눈부처,
우리 동국인들은 서로에게
눈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동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국인에게 눈부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양지웅
시립대 국어교육4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안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인위 **원고 마감** 2006년 5월 31일까지(2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디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권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센터 특강

노동부 국고지원 ‘대학 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 이후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입사서류작성·면접 집중 특강 및 실습 참가자 모집,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들이 바로 그것이다.

입사서류작성·면접집중 특강 실습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입사서류 작성법 특강 △면접 준비 특강 △면접실습 △입사서류클리닉 △면접클리닉으로 이뤄져 있다. 전 학년,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취업지원센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접실습 및 클리닉은 특강참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은 오는 10일 현대백화점 인사팀 부장 백영준 동문을 초청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실에서 각 강의마다 선착순 100명을 방문접수 받는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에게는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해 본교생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기별 10회씩 연 20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는 △진명분석·자기진단 △직업이해·자기연출 △면접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으로 여대생 진로 및 취업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달 30명이 제 1기 수료했으며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2.3기 강의를 계획되어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선착순 50명을 방문접수 받으며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하면 수료증이 수여된다.

김경재 동문 장학증서 수여식

김경재(농학 69졸)동문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8일) 3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선발대상자는 양재호(법학4), 임동성(경영4)이다.

김경재 동문은 자년부터 후배양성을 위해 매년 1000만원을 기증해, 학기별 250만원씩 2명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 2,3학년 재학생 중 부/모의 재산세 및 종로세 합계가 10만 원 이하인 사법고등고시 준비자이며,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자이다.

한편, 이번 수여식에서는 2006년 북미주동문회 초청 해외연수자 장학 수여식이 함께 진행된다. 이는 올해 3 번째 시행되는 초청해외연수 선발대상자는 유반아(불교4)양 외 24명이며, 이들은 오는 7월 7일 출발해 14일간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건학 100주년 맞아 캠퍼스도 새백년 맞이

명진관 바닥공사·혜화문 옹벽공사 등 교내 곳곳 공사진행 본관 증축으로 여러 건립사업 청신호 밝혀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건학 100주년과 기념 행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시행됐던 교내 각종 공사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명진관 바닥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됐다. 바닥 콘크리트가 노화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노화된 콘크리트를 교체하며, 양쪽 출입구에 각 하나씩 교표를 이미지 처리하는 공사다.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4인용 테이블도 6개 정도 놓아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초 착공해 약한 달간 진행·완료됐다.

또한 3월 2일 착공에 들어간 본관 5층 증축공사가 지난 달 24일 완공됐다. 75평의 증축된 공간은

대접전실, 소접전실, 소회의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학교의 여러 귀빈을 맞고 회합을 할 적정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로 인해 앞으로 고품격 행사진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증축공사는 서울시의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된 이후 시행된 첫 사업으로써,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로막혔던 각종 건립사업들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각종 증축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혜화문 주변 옹벽 녹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동대입구역에서 중문으로 올라오는 길을 조경하는 이 공사는 건학100주년 기념일인 오늘

에 맞춰 완공예정이고, 중구정이 직접 주관하며 기존의 높은 옹벽을 낮춰 시민, 학생, 교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길 양쪽에는 벚꽃과 초화류가 심어질 것이다.

한편,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첫 발걸음인 산학협력관과 기숙사 건립사업도 순조로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입한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가 4월 19일에 통과됐다.

산학협력관과 기숙사는 지상 7층부터 지하 2층까지 총 1만 3천평 규모로, 산학협력관 7천평과 1천 2백평 수용이 가능한 6천평 규모의 기숙사가 2008년까지 완공될

것이다.

산학협력관이 완공되면 깊어지는 산학연계교육과 신공학교육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며, 기숙사 건립으로 지방 우수학생의 유치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학교는 100주년을 맞아 더 아름답고 깨끗한 캠퍼스로 변화중이다.

여러 공사 사업들이 100주년 학기기념일 행사들을 전후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층 더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회전무대

관리요망

○...이공계대학 학생들이 또다시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다닌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이공계 공부의 필수 바탕인 미적분과 물리 과목을 배우지 않고 입학한 문과계열 학생들이 많은데도 수업은 단일 강좌로 진행되고 있고, 이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몇몇 강의도 홍보부족으로 수강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초교양의 영어강의처럼 수준별로 받을 편성하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보충학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절대 평등 추구해 함께 가는 강의(!)"

페이스 오프

○...학구열이 뜨거운 시험기간. 우리학교 몇몇 학생들은 변신을 시도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학교는 대부분 시험을 보기 전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대리시험이 가능한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 성적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우리학교 사진출석부는 무용지물(!)"

청개구리

○...중앙도서관은 자신의 본분을 깜빡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동국 백년전' 공사가 학생들의 시험기간에 진행돼 공부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도서관은 조용하게 공부하는 곳인 만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평일 낮 시간은 피해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빼앗긴 중도에도 학생들은 오는가(!)"

도서수난시대

○...우리학교 출판부 직원들은 발디딜 틈이 없다는데.

무슨말이고 하니, 출판부에서 매년 20여 종 가까이 새로운 책이 출판돼 서적수가 늘어가는데 10년째 같은 장고를 사용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공간부족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미 출판된 책의 보관장소는 학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출판부 책들은 천덕꾸러기(!)"

2단계 BK21사업 결과 2개 사업단 선정 연구실적 활성화 위한 방안마련 필요

지난달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단계 BK21사업 선정결과에서 우리학교 연구단은 인문사회 분야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사업단장=조용길·불교학)'과 핵심사업분야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장=김현정·반도체과학)' 2개학과가 선정됐다.

우리학교의 경우 대형사업단으로 선정된 불교학과 사업단은 앞으로 7년간 약 40억을, 핵심사업단으로 선정된 반도체학과 사업단 약 17억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2단계 BK21사업에는 총 74개 대학 568개 연구단이 선정됐고, 선정된 사업단에는 총 2조 3백억 원이 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우리학교는 이번 2단계 BK21사업에서 총 11개의 사업단이 선정됐고, 이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돼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

이에 관해 학교 관계자는 "BK21 사업단 경쟁평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정량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이 나와 연구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BK21사업에서는 지난번 1단계 사업때 전체 지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대의 독식 현상은 줄어들었지만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여전히 대학별 지원 순위 상위10위권에 선정돼,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단 선정결과 부산대, 경북대 등 지방대의 약진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문과대 학생회장 당선자 인터뷰

“하나되어 함께하고 친구같이 재밌는 문과대 만들 것”



요한 과제라고 느꼈다.

- 선거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다면
= 우선 명진관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대동제, 명진제전 등의 행사에 주력하려고 한다.

문과대가 있는 명진관이 야외 바닥공사는 이뤄졌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시설은 열악하다. 특히 겨울이 되면 실내가 춥기 때문에 난방시설의 확충에 힘쓸 것이다. 좁은 열람실 시설을 확장해서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가을에 열리는 명진제전에 학생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하나 되어 함께하는 문과대'라는 슬로건에 맞게 학생들을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

- 앞으로 문과대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루했던 문과대의 이미지를 탈피해 '친구같이 재미있는 문과대 학생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으로 시작되는 동국문학 100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문과대를 동국대에서 가장 빛나는 단과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속>

banacream@dongguk.edu



“고시 3관왕의 지난 날” ...

지난 달 25일 예술극장에서 법과대학 주최로 '제1회 법과대학 명사초청 특강'이 개최됐다. 이날 예술극장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학생들은 고승덕 변호사의 강의를 2시간이 넘도록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이공계 인력수급 불균형과 공학교육인증제

과학과 인문의 향기가 빛어내는 차기 동국 100년

21세기는 지식기반형 산업사회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의 확립'에 맞추어져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창조적 인재양성 건설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논단

이 의 수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공학교육연구센터장

이공계 인력의 공급 초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OECD 국가들의 학사이상 졸업생 중 이공계 비중은 25%이나, 우리나라는 41% 정도가 배출되고 있으며, 노동 인력대비 과학기술 종사자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26%이나, 우리나라는 1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은 공급 초과인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공계를 졸업한 인력 수는 매우 많으나 막상 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이공계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이다. 대학에서의 공학교육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12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여개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학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학교육인증제 정착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공학교육인증제이다.

공학교육인증제의 정착은 현 정부에서 창조적 인재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10개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

로 채택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된 내용이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로 공학교육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학교육에 관련한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정통부가 주관하는 교육품질개선 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장 적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NEXT 사업에 3개 학과(컴퓨터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전자공학)가 최고의 점수로 선정됨으로써 공

학교육에 대한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학교에서는 공학교육연구센터를 대학교 부속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통하여 동국대학교의 공학교육이 국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남산골 선비정신이 이어가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첨단화된 과학의 만남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없는 동국대학교만의 공학교육을 창출할 것이다.

전통과 첨단 의 조화

동국대학교의 공학교육의 목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적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하는 공학인은 100년 전통의 인문의 역사와 첨단화된 기술이 함께하는 향기 있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5월 8일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동국 100년은 과학과 인문의 향기가 빛어내는 역사가 될 것을 확신 한다.

사설

100년을 버린다

마침내 새아침이 밝았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새는 노래하고 꽃들은 다투어 핀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은 햇살의 화폭에 점점이 박혀 있거나 떠다닌다. 무심하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그려할 뿐이다. 일찍이 라오쯔가 말하기를, "天地不仁(천지는 인자하지 않다)"이라 했는데 무심이 꼭 그렇다. 그러나 무심은 인자하지는 않지만 익숙하기는 하다. '그게 그거다.'

흐르는 시간 또한 늘 입은 옷처럼 익숙하고 편안하다. 시간은 존재의 애인이며 동시에 잔인한 배신자이기도 하다. 혈사(血絲)가 얼비치는 소녀의 뺨에 가슴 설레는 키스를 보내는 이는 잠시 뒤에 바람의 헛바닥이 들락거리는 그녀의 해골을 보게 된다. 그런 것이다. 지난 수백 만 년 동안 우리는 시간의 이러한 본질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 동국가족들은 그 동안의 익숙한 시간의 심리학에서 쾌활하게 벗어난다. 오늘은 다른 날과 분명히 다르다. 2006년 5월 8일, 학교 역사의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조국의 파란만장한 현대사와 함께 헤쳐 나온 100년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약속하고 다짐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 한 살이 다. 이제부터는 100년을 버린다.

버리는 것은 폐기하는 게 아니다. 거듭 나는 것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매순간이 새롭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다. 햇빛 밝은 아침 연못, 밤새 수면에 잠겨 있던 연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처럼,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며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갔다가 연꽃 속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현실이 아닌 환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매순간 순간, 우리의 편안과 안주와 구태를 던져버리고 의식을 새롭게 깨어나게 하는 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심청' 이야기의 핵심이다. 오늘 아침, 새로 한 살을 시작하는 우리 동국대학교에 그 연꽃 냄새가 끊이지 않고 오래 가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잠시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 웅망정진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그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굳센 의지와 실천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동국대학교는 세계의 어느 대학도 가지지 못한 숭고한 도덕적 가치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서양사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불교가 세계사의 중심이 된다. 지난 해 겨울, 총장 일행이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쪽의 석학들이 건넨 말이다. 그러므로 불교적 사유와 그 실천은 이제 '동양적'이라거나 '전통적'이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세계적' 혹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동국대학교는 여건이 얼마나 좋은가. 화두를 붙잡고 참선 삼매에 빠지는 스님 님은 학생들, 순간의 깨침을 통해 영원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강인하다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 동국대학교여야 한다.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동국의 정신이자 기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학 기념일을 맞아 마침 대선배 만해 한용운의 한시 10수가 새로 발굴되었다. 심우시(犀牛詩)다. 진리를 깨쳐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한 것이다. 이 시의 제일 마지막 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아침 우리 동국인들의 눈을 불태운다. '他日茫茫苦海裏(타일망망고해리), / 更教蓮花火中開'(갱교연화화중개), '훗날 망망한 고해 속에서도 / 불꽃 속에 연꽃으로 다시 피리라.' 불꽃 속에 피어나는 연꽃은 물론 선적 이미지이고 시적 상징이다. 여기서서는 진선미의 모든 가치가 하나로 모인 결정체로 보면 된다. 이 결정체를 보는 일은 불굴의 의지와 그 도전적 실천 정신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건학 100년의 새아침, 우리가 100년을 버리고 새로 한 살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 대학, '대입전형 공동입장' 발표

내신 비중 늘리기로 ... 교육부 권고 수용여부는 미지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24개 국·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지난 2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대입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50%로 늘리고 대학별 고사를 최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늘려 대입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24개 국·사립대학 이번 공동 발표와 관련해 대학입시에 관한 각 대학들의 실효성과 자율성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비중을 높이고, 대학별고사 비중을 낮춰줄 것을 각 대학측에 요구해 왔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지역 7개 대

학은 지난해 12월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2008학년도 대입과정에서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학생부 비중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학차원의 입시전형을 발표했지만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학생부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대학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40%수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10%이내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성적을 산출할 시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일겠다는 제도를 발표했고,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이번 공동발표와 관련해 우리학교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실제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선 교육부의 결정을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적당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논의 중"이라 밝혔다.

서울과 전국의 주요 국·사립대가 공동발표에 참여한 만큼 이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도 교육부의 지침과 24개 대학 공동발표에 따라 입시전형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공동발표만으로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뜻을 보이기에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만으로 변화가 얼마나 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각 대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입시전형을 발표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교육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시행으로 각 대학이 경쟁력을 갖춘 신입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학역시 대학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정길상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강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사진으로 보는 동

우리학교는 오늘, 건학 10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은 지난 3월부터 열린 주요 기념행사 장면들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동국백년전

중앙도서관은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로비 및 전시실에서 '동국백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올해로 100돌을 맞는 우리학교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적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3·1운동, 조선어학회 사건, 4·19 민주화운동 등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사적으로도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보존 자료들이 전시된다.



박영석 동판 부조·원정 발대식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의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동판부조가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돼 지난 3월 21일 공개됐다. 아래는 이날 있었던 건학 100주년 기념 히말라야 원정 발대식에서의 16명의 원정대원과 박 동문의 파이팅 모습.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도전정신에 박수를!



건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국의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 학술대회가 불교문화연구원(원장=박경준·불교학) 주관으로 지난 달 2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는 1906년 명진학교로 출발한 동국 100년간의 역사적 회고와 그 건학이념 및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고, 동국대학교 초기 학제의 실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불교교육 발전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최초의 시도였다.



DMZ 국제학술회의

'DMZ 생태·평화' 학술대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간 티워호텔 렉스룸에서 열렸다. 이는 DMZ 생태문제와 DMZ를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관련 분야의 국제적 학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여기에는 워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을 비롯한 국내·외의 석학 14명이 발표했다.



'백년의 만남' 시화전

한용운, 서정주, 정지용, 조지훈 등 동국문학을 빛내 온 현역 또는 작고시인들의 작품을 한국화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백년의 만남' 시화전이 지난 달 26일부터 내일까지 열린다. 왼쪽은 문정희 시인과 정종복 화백이 함께 쓰고, 그린 작품 '동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



국 100돌의 순간들



동국 백년비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건학이념을 기리고자 정각원 아래 '동국 백년비'가 설치됐다. 가로 3.6m, 세로 6m 자연석 오석의 웅장한 기념비 비문에는 100년 전 명진학교 설립에서부터 이야기와 앞으로의 새로운 백년에 대한 서원이 새겨져 있다.



100주년 기념 우표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조의연·영어영문학)는 5월 8일 오늘 건학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는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사진·글 = 사진부



동국백년 서포터즈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학교 홍보에 힘쓴다. 바로 '동국백년 서포터즈'가 지난 1일 발대식을 가진 것. 선발면접과 워크샵, 교육 등을 거친 58명의 서포터즈는 이날 처음으로 존재를 알리고 도너츠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소망의 벽'을 진행했다.



연예인 재학생 홍보대사

지난 달 20일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연극학과 연예인 재학생 홍보대사' 위촉 및 간담회가 교무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한 문소이, 박하선, 오햇님, 정다혜, 이윤미, 이상원, 이종문, 서영희 등 문은 같은 학과 선·후배다운 친근한 분위기로 100주년을 함께 기뻐했다.



동국 빛의 축제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동국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점등식이 지난 4일 경주캠퍼스 백상탑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점등식 및 국악과 공연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공연, 작은 음악회, 응원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치러지며, 다음달 3일까지 약 한달 간 재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주의 주요행사

건학 10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KBS 열린 음악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김경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승기, 토니안, BMK, 김경호, 박미경, 설운도, 주현미 등과 우리학교 출신 연예인 다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일요일(14일) 5시 35분부터 KBS 1TV에서 방송된다.

달빛, 연등 축제

금요일(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달빛 연등축제가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본부 주관으로 열린다.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의 전야제로 열리는 '달빛 연등 축제'에는 남산의 야경과 전통 등, 연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정에서 시 낭송, 살사댄스, 클래식기타,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생, 교직원, 동문 뿐만 아니라 중구민까지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

토요일(13일)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준비한 20만 동문의 '홈커밍데이' 축제로서 재학생과 졸업동문 간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오후 3시부터 동아리 곳곳에서 열리는 '동국 100년의 人+緣 1부'에서는 동국관, 만해관, 학림관의 보조무대에서 동아리 공연과 꼭지점 댄스, 고성방가, 줄다리기 등 단체대회, 노래자랑, OX퀴즈 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팔정도 주변에서는 △플래시게임 △다트게임 △페이스 페인팅 △다시찍는 졸업사진 △기념품 판매 △동문스타 팬사인회 △고적대 퍼레이드가 열린다. 각 학과별 부스에서는 다시 여는 사은회가 진행된다.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2부 행사에서는 이승기, 김장훈, 마야, 우리학교 백상응원단의 공연과 최다 참가상 및 행운권 추첨이 있을 예정이다. 불꽃놀이도 진행된다.



국보급 유물전

박물관에서는 '동국대 소장 국보급 유물전'을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학교에 소장된 25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고려시대 불화 6점 등 국내·외의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 중이다. 아래쪽은 개회식 전 팔정도에서 열린 동산제의 한 장면.

건학 100주년기념 총장 인터뷰

“대학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설 것”



-우리학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학교만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대학은 무엇보다도 송고성을 잃지 말고, 송고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고, 절대적인 존재들인데 그러한 젊은 이들이 인류사회에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을 때 대학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돈벌이만을 위해 존재한다든지 교수나 설립자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의 근본적 목표는 인재양성에 있고 거기에서 대학의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절대적 조건은 학내구성원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떤 이상을 가지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려면 학내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그들 후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을 잘 짓는 다리가 외적조건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지 못하면 명문사학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볼 때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이 후원하는가에 달려있다.

-학교발전 계획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재원확보 계획과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 지역출신 재력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노년을 맞으면 자기고향에 가서 대학을 돕는 게 하나의 유행과도 같다.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은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우리대학보다는 앞서나가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동문들도 모교가 꿈이 있고 잘되

어가는 모습을 봐야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도 이제라도 동문들이 작은 재산이라도 내 모교에 주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활용 가능한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재산이 많은 편이다. 매각 처분 가능한 땅들을 매각해서 연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임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학교의 기본적 교육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면 재정 확충에 좀 더 힘썼을 것이다. 그 당시 가장 급했던 것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강화정책을 시행해 공부하는 대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앞으로는 바로 재단과 학교가 활용 가능한 재산을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학교자본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100주년을 맞아 더욱 도약하기 위해 학내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주체는 학생, 직원, 교수 3주체가 있고 2차 주체로는 동창, 교계가 있다.

최근 우리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갈등은 우리대학으로 바서는 동문, 교계의 갈등이 한번쯤 겪어봐야 될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선할 부분이 많은 조직의 경우 개선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이 오게 되는데 우리학교는 현재 화합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고, 화합으로 나가기 위한 값비싼 갈등을 통해 이제 본 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

-취업문제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학교가 요 근래에 노동부주관 취업기능 확충사업학교에 선정되고, 여대생 진로교육과 정에도 선정이 돼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가 제도에 의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예를 들면 산학협력교육, 맞춤형 교육, 전공교육을 제대로 하면서도 15학점정도는 산학협력관계에 의한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산라인에 실제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미국 M리그 대학들을 탐방하고 오셨는데 향후 해외자매 대학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명성 높은 대학들과 교류한다는 것을 해외대학과 교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해놔야 우리대학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적 명성이 있는 대학에 가서 정장급 교수, 제자들과 어깨를 겨뤄야 앞서나가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유력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은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것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던 성적은 가치가 없다. 동대에 입학한 것은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동대에 와서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학교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인재양성이다.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활성화해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늘리고 실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국 백년사' 발간 '파워엘리트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백주년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호화로운 전시적 사업은 가끔씩 지양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100주년 행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화려한 현시적인 사업보다는 예산이 많지 못하기에 최소예산을 써서 대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려고 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학교 역사정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진과 저서 등 자료를 통해 동국의 백년을 정리하는 '동국백년전' 등 전시행사를 준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동국문인들의 작품을 통해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했다. 구성원 화합을 위해 핵심적인 사업으로 준비한 홈페이지,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 등의 행사에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등록금이 2%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고, 이는 등록금 인상 투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마무리 됐는데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측과 학생들 간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



을 생각하십니까?

등록금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 총장으로서 고통이다. 등록금 인상은 결국 다른 대학과 협의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많이 받아 학교발전엔 투자하는데 우리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년도는 학생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 문제에는 시작이 정부로 부터 시작됐고 정부의 예산지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논리를 가지고 대학과 구체적인 방향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고립된 존재가 아닌 만큼 학교입장을 생각하고, 학교는 등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여러 각도로 늘려서 학교발전엔 풍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캠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캠퍼스 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남산고도제한으로 학교 건물이 고층화가 허용되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무로영상센터가 생기고 신공학과과 기숙사가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중요한 회의나 외국인사가 방문했을 때 쓰는 접견실을 새로 만들었고, 도서관 좌석문제 등을 비롯한 캠퍼스 내 공간문제를 해소하려면 우선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많이 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동국과과 해화관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화관과 동국관 사이에 큰 강당과 소규모 세미나실, 대원학생, 학부생들이 이용가능한 그룹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史

3·1운동과 장기 휴교

⑤ 불교중앙학림 시대2



만해 한홍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3·1운동의 전면에 나선 이는 명진학교 출신이자 불교중앙학림의 강사였던 한홍운이었다. 그는 백용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33인의 민족지도자로 참여하였다.

한홍운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2월 28일 저녁, 종로 계동의 자택으로 불교중앙학림 학생들을 긴급히 소집하였다. 이날 한홍운의 자택에 모인 청년은 신상완·백성욱·김상헌·정병헌·김대용·오택연·김복신·김법린 등이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3만 매 중 불교계에 배당된 1만 매를 받아 절반은 서울 일대에, 나머지는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3·1운동의 전면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중앙학림의 설립에 관여했거나 강사 출신, 혹은 재학 중이던 청년승려들이었다.

3·1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항과 분노를 확인한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식민교육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한국인에게도 고등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식민교육을 담당할 교원과 총독부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기독교와 천도교 등 종교계는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교계만큼은 고등교육기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교계는 청년승려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교중앙학림을 불교전문학교로 지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문학교 설립을 백지화하고 말았다.

재단의 결정에 반발한 학생들은 전문학교 승격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학교에 건의하고, 1921년 9월 21일 6개조에 달하는 '중앙불교전문학교 승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재단 측의 대응에 실망한 학생들은 10월 1일을 기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동맹휴학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30분산 주지들과 소장파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주지회의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던 1922년 5월 26일에는 양측이 따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에는 주지회의 측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1923년 3월말까지 동광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재단에서 경영하기로 하는 대신, 당장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불교중앙학림은 향후 5년 동안 휴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불교중앙학림은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4·19혁명

그 중심에는 우리의 선배님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국대학교, 지금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1960년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가 터지자 대통령의 경무대로, 경무대로 맨앞장서서 물러가다가 맨처음 사격에 희생당해 순절한 것도 우리 동국대 학생이 아니었나 ?!

언제나 이 민족의 정의에 앞장서고, 의리와 인정에 투철하고, 엉터리 학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오랜 학풍을 우리는 믿나니, 무한히 계속될 이 민족사 속에서 모교여 늘 건재키만 하소서!

미담 서정주, 100주년 기념축시 중에서

4.19혁명 주동자 명단

Table listing names of 4.19 Revolution leaders across various departments like Law, Economics, Political Science, etc.

동약을 알려라! 알린만큼 거둔다

건학 100주년에 날개를 달아라!

행사의 시작과 끝은 탄탄한 홍보 ... 열띤 홍보 펼쳐져

'Do Dream!' 북을 두드리는 소리... 신명을 부르는 소리... 코끼리가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울리는 소리... 바로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설문조사이다.

'홍보는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라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요즘, 대학가 역시 그 중심에 서 있다. 특히나 우리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연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주년 홍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일간지 광고. 백주년 축하 인사말을 받아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된 연속 광고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새 100년 뉴리더, 동국대학교!' △이영령 전 문화부장관 = '디지로그의 희망, 동국대학교'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 동국대학교' 등 거쳐 홍기삼 총장으로 이어지는 일간지 광고가 화제가 된 이유는 인물의 중량감과 한 면 전체를 할애하는 파격적인 지면배치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미당 서정주 백주년 추시 발표와 3일 만해 한용운 친필 유묵 병풍 공개를 통해 주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교내의 곳곳에서도 백주년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물들을 접할 수 있다. 동국인들이 매일같이 찾는 총무로 역과 동대입구 역 내에서는 굳이 휘휘 둘러보지 않더라도 박영석 동문 와이드 광고가 한눈에 속 들어온다. 비슷한 예로 숙명여대 역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을 비롯한 네 군데 지하철 역사에 와이드 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동대입구역 태극당 앞과 북한남 삼거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알리는 선전탑을 볼 수 있다. 차량 및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눈길에 쉽게 머무는 이 선전탑은 웅산 구청 및 중구청과 각 관할 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오는 13일에 펼쳐질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를 광고 중이다. 이밖에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 배너, 가로등 등이 홍보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홍보지로 '동국 타임즈'를 발행하고 있다. 'DM'학술대회나 박영석 동문 '희망원정대' 등에서 인지도 있는 후원스폰서를

두는 것도 홍보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홍보영화와 브로슈어 제작이 마무리됐다. 홍보영화는 보다 효과적인 영상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만들어졌고, 건학 기념식과 입시 홍보 등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브로슈어는 1차적으로 오늘 백주년 행사 자료제공을 위해 사용되고, 앞으로도 이후의 일정에 대한 내용보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1일 발대식을 마친 '동국백년 서포터즈' 역시 백주년 홍보의 주역이자 우리학교의 얼굴이다. △통역 △홍보 △디카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학교홍보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애쓰게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백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준비가 전초전이었다면 효율적인 홍보 전략은 거기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후끈 달아오른 홍보전이 백주년 기념행사가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두드려라 수험생의 마음

전략적인 입시홍보 ... 우수한 학생 유치위한 첫걸음

수험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입시홍보다. 홍보가 전략적 마케팅인 만큼 각 대학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입시홍보는 일반적으로 △입시요강 및 홍보책자 제공 △입시설명회 △온라인홍보 △인쇄매체 광고홍보 △입시박람회 참가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별다른 특색없이 천편일률적인 홍보가 이뤄지기 쉬운 가운데, 우리학교 홍보방향 중에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어 소개한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고교방문 입시설명회가 실시된다. 이는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달라서 교사 한 사람이 숙지하고 학생들을 상담해주기 어려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서울, 경인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개최하며, 이미 60여 개의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국내외 입시박람회에 참여한다. 많은 수험생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입시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해외홍보가 계획 중이다. 학생선발실 김중주 직원은 "국제교류 진흥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의 80~90%가 중국인이라며 올해는 중국으로 홍보를 간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학생선발실 Q&A게시판은 타 대학에 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쁜 입시철에도 게시판에 답변이 신속하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학생선발실 도우미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음카페 '동국상상'은 익명성을 이용해 Q&A게시판의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입시철에만 반짝 활성화 되고



관리자가 재학생들이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라토너가 잠깐 뒤흔치면 그 순간부터 정상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대학들의 우수 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보다 차별화된 홍보를 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
yijoonjae@dongguk.edu

학생선발실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

대학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른바 이미지의 홍수다. 무심코 길을 걷다 고개를 들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와 만나게 된다.

최근의 광고계는 제품 자체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신을 한번에 기억하게 하는 강렬한 힘, 그것이 바로 이미지다.

이미지의 중요성은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에서도 그 대학만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를 창조한다.

덕성여대는 '나의 브랜드발전소', 숙명여대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연세대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서울여대는 'I'm 서울여대'라는 카피로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물을 향한 정확한 타겟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학생선발실 주현석 과장은 "보다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며 "올해에도 이 결과가 의해 학생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수강신청과 함께 이루어졌다. 수강신청 후 설문지 조사에 참여해야만 프로그램 종료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2805명이 참여한 2005년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 하면 떠오르는 상징 또는 이미지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불교종립대학=49.2% △민족사학=22.7% 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어서 2574명이 참여한 2006년 신입생 설문조사에서는 △불교종립대학=48.4% △민족사학=24.9%로 나타났다.

또한 동국대가 불교종립학교라는 사실이 대학선택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2005년의 경우 △긍정적=37.9%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음=46.2%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긍정적=40.4%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음=43.5% 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도별로 불교종립대학이라고 손꼽은 비율이 △2002학년도=76.5% △2003학년도=58.7% △2004학년도=69.1% △2005학년도=49.2% △2006학년도=48.4%로 나오는 등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것이 사실이다.

설문에 의하면 동국대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학교만의 특색을 살려 불교에 관련된 사업을 특성화시키되 다양한 이미지 역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
lisonaral@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5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 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적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5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단체 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 정**

제2회 영화감상토론
일 시 : 5월15일(월) 오후3시~6시(예정)(개봉관 사정에 따라 추후확정)
장 소 : 대학극장
진 행 : 체육교육과 손현우 교수(어학실장)
선정영화 : 노스 컨슈어 / 나키 카로 감독 2005년작
관련도서 : Class Action / Clara Bingham
정 원 : 10명

제3회 영화감상토론
일 시 : 5월21일(수) 오후3시~6시(예정)(개봉관 사정에 따라 추후확정)
장 소 : 대학극장
진 행 : 영화영상학과 조종홍 교수
선정영화 : 다빈치 코드 / 론 하워드 감독 2006년작
관련도서 : 다빈치 코드 / 덴 브라운 지음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광>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미리 읽어와야 하며(원서제외), 영화감상 후 바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개봉과 상영자의 경우 참여한 학생들에게 입장권과 음료가 제공되며 도서상품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불교생태학 총서3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원 편저
2006/신국판/522면/25,000원
ISBN 89-7801-153-5 94220

동국총서 14
아시아의 등불
위대한 출가
에드윈 아놀드 지음 / 백원기 옮김
2006/국판/266면/12,000원
ISBN 89-7801-157-8 94890

동국총서 14
아시아의 등불
위대한 출가
에드윈 아놀드 지음 / 백원기 옮김
2006/국판/266면/12,000원
ISBN 89-7801-157-8 94890

동국대학교 불교생태학총서 시리즈 제 3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이 스리랑카 국립대학교 페라디나야 대학과 함께 '불교의 생태학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엮은 것이다.

현재 불교학을 전공하는 전세계 석학들은 생생 배경이 다른 불교와 생태학이라는 두 학문의 영역을, 현대 인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종교의 자리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론과 실천을 친생태적인 학문으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주요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기본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두 영역을 학제간 통합의 주요마대로 설정하여 불교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

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 한국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하여 발간된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는 자연을 이용과 착취의 수단적 대상으로 본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주요 논의의 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을 불교생태학적 입장에서 풍부한 논의를 펼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천을 불교의 상생과 화해의 정신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존적·순환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고자 이를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생태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될 것이다.

영국 서색스주 출신의 에드윈 아놀드 경(1832~1904)은 시인 겸 언론인으로 서구의 불교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인이다. 그는 로체스터의 킹즈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옥스퍼드대학 재학 시절 '뉴디게이트' 상을 받았으며, 1856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햄의 킹 에드워드 6세 스쿨에서 잠시 교편을 맡은 후, 인도 푸나의 데칸 산스크리트 칼리지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동양에 오게 된다.

향토적인 인도 풍경의 평화로움과 조용함은 고대 사원과 신앙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신비로움과 함께, 동양에 대한 그의 지적 갈증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너무나 이국적이고 너무나 서양과 다른 동양문화와 철학에 대해 배우게 된 것도 이곳 인도에서였다. 이러한 것들에 매료된 그는 고타마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포함한 동양철학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준 필리터와 산스크리트 문학

의 보고(寶庫)를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묘사한 그의 대표작 '아시아의 등불'(Light of Asia, 1897)이다.

'아시아의 등불'은 유럽을 비롯해 미국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일반인에게 최초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이 시기가 독특한 형식, 이상한 이름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당시 인도에 관한 신비로움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대기는 서구인들에게 부처님을 완전 선(漸)을 행한 인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서구의 일반인들이 부처님에 대해, 그리고 불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극히 미미했으며, 심지어 동양에 관한 학술지조차 드물었던 때에 이 시집이 나온 이후 부처님과 불교론에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중앙도서관

달하나 천강에

의례의 참 의미



조상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만해와 미당, 학교에 다시 돌아오다

만해, 미발표 한시 발견 ... 미당, 미리 쓴 백주년 축시로 감동 전해

‘훗날 망망한 고해 속에서도 다시금 연꽃으로 불꽃 속에 피게 하리.’

우리학교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인 만해 한용운. 그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일 만해의 미발표 한시 ‘심우시’가 적힌 10쪽짜리 병풍이 8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에 타계한 미당 서정주 시인이 생전에 써둔 백주년 기념축시도 지난 1일 공개됐다. 만해 병풍은 우리학교 동문인 정재철 전 장관이 지난 4월 하순 기증한 것이며, 견학 100주년을 기념해 중앙도서관 ‘동국 백년전’ 전시회에서 4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된다.

심우시는 ‘심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이 진리를 깨우쳐가는 과정을 목동이 방황하고 있는 소를 찾아가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우시는 우리를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만해의 심우시는 표현면에서 그 비유가 뛰어나고 역동적임을 느낄 수 있으며, 깨달음이 강력한 실천의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일(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특히 열 개 수에서 뛰어난 문학적 수사를 살펴 볼 수 있다”며, “단순한 문학작품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만해의 불교관 및 불교적 지향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우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만해의 ‘십현담주해’의 사상적 지향과 같은 주제사상을 담았다는 점과, 만해시의 목록에 새로운 10수를 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33인 중의 한분인 한용운 스님 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각지로 나뉘어져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미당 서정주가 1996년 5월에 쓴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백주년 기념 축시 중 일부이다. 축시에는 미당의 모교사랑과 역사식이 담겨 있으며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흠모와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당에게 이 시를 부탁했던 홍기삼 총장은 “미리 100주년 축시를 부탁드리면서 면구스러웠다”며 “미당 선생은 100주년을 맞아 써도 될 텐데 벌써 청탁한다며 호쾌하게 웃으셨고,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동안은 원고지 5장 분량의 축시를 워드 작업하여 출력 후 함께 봉인하여 중앙도서관 내국보급 도서 보관실인 귀중본 자료실에 보관해 왔다. 또한 올 가을 타임캡슐에 넣은 뒤 100



만해의 ‘심우시’ (위)와 미당의 백주년 축시(아래).

년 뒤인 2106년에 재공개할 예정이다.

동국이 배출한 문인의 정점에서 서 있는 한용운과 서정주. 그들의 빼어난 문학 작품이 공개된 것은 비단 동국인들의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만해 한용운과 미당 서정주의 숨결이 작품과 더불어 오래도록 동악에 머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동불연꽃제

팔정도에서 펼쳐져 동국인을 아우른 축제의 자리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지난 달 26일부터 삼 일간 만큼은 팔정도의 주인은 오롯이 동국인들이었다. 동국대학교 불교도연합이 주관하는 ‘동불연꽃제’에 팔정도에서 계신 부처님의 넓은 미소가 여는 때 보다도 인자해 보인다.

이번 ‘동불연꽃제’는 백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석립회 주도의 행사가 성대해지고, 특히 갖가지 색의 ‘만장’이 팔정도를 둘러싼 점이 눈에 띈다. 첫째 날 목척산 감사제와 마지막 날 천도의식은 백주년을 맞아서 올 해 처음으로 치러진 행사이다. 또한 ‘동국 백고좌’를 통해 ‘동국이 다시 부른 선인들’을 주제로 역대 큰 스님 100명의 명호가 적힌 100장의 만장을 교내에 세워서 더 나은 동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동불연꽃제’는 불교대 소모임, 불교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동아리, 외부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한 축제의 장이었다. 주요 행사는

△26일=입제식, 목척산 감사제, 중앙동아리 축하공연 △27일=관불의식 △28일=천도의식, 소품강연회, 집등식, 대동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덧붙여 팔정도 내에 부스를 설치하여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불교유적답사학회 △이판사판 △진전회 △헤스퍼러스 △불교학생회 등이 다채로운 행사를 꾸렸다. 불교학생회의 전통연등 만들기에 참여한 김주연(사학4)씨는 “이전에 3000배와 등불 달기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동불연꽃제’는 홍보 포스터 및 애드벌룬, 풍선아치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불교도단의 축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타단과대생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마지막 날은 예정보다 접수수를 30분 이상 늦추기도

하였다.

한편 임화인(선학3)씨는 “첫 날 목척산 감사제 당시 소란스러워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의 뜻인 ‘수처자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걸맞은 행사 혹은 불교대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사가 부족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예정된 임시체험이나 불상청소가 행해지지 못한 점이나 전 주회가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불교대 학생회장 최성민(선학3)씨는 “학생회가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불교종립학교로서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바람처럼 ‘동불연꽃제’가 부처님의 자비심과 이타심을 본받아 전 동국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 생물학적인 성장만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화 과정에 일련의 의례(儀禮) 혹은 의식(儀式)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삶의 질서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의 동양 전통인 관혼상제(冠婚喪祭), 불교의 수계(受戒), 결혼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크고 작은 의례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존속을 꾀한다.

의례의 성격과 중요성은 그 유형에 따라 그리고 각 사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의례가 계속 반복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나타나게 된다. 의례가 시간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형식이 박제화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의례적 행위에 참여하는 성원 당사자가 스스로 의례를 ‘무의식적으로’ 따른다는 점이다.

특정 의례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정작 의례 자체의 의미에 대해 나름대로 성찰하기보다 의례적 절차에 무작정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가 만든 각종 의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탓에 일종의 ‘자동화된 길들이기’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닌다. 때가 되면 잊지는 않고(물론 잊어버리면 더욱 낭패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무런 반성행위 없이 무작정 의례에 ‘스쳐 지나듯’ 행동한다. 이로써 통과의례(通過儀禮)가 그 본뜻을 잃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에 이르렀다.

또 다시(!) 5월이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이 달에 있다. 모두 정해 놓은 의례를 또 다시 통과하게 된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장 회의에서는 스승의 날에 휴교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의미를 더욱 되살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에게 과도한 선물을 돌리는 나쁜 ‘관례’를 깨기 위한 이유라는 말을 들으면서 씩씩함을 지을 수 없다. 관성적인 의례의 참여가 가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의례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성마저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한다.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존재 이유도 동시에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요구되는 것은 의례의 의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선물에 대한 강박관념도 그 의미에 대한 성찰에서는 부차적이다. 결국은 마음가짐이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린다는 단순한 목적성 앞에 형식은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없다. 의례가 더욱 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의미에 대한 성찰 또한 반복되어야만 한다.

또 하나, ‘5월의 의례’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 존경하는 스승, 그리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현재라는 시점의 일회성을 넘어서 의례를 매개로 전해지는 유구한 전통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반복되는 의례에 개인적 존재의 ‘역사성’까지 스며들었다.

